

오순절 후 아홉번째 / 승급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9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8월 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623 장 “주님의 시간에”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2 번 시편 71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12:1-14	고원희 집사
찬 양 Anthem	“내 모든 것을 주께”	찬양대
설 교 Sermon	“내가 피를 볼 때에” (When I See The Blood)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여호와의 유월절”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149 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통일 14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Sin of Commission)와,

우리의 불순종으로 지었던 죄(Sin of Omission)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2:9)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개역개정 **출12:13**)

“The blood will be a sign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ar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No destructive plague will touch you when I strike Egypt.” (NIV **Exodus 12: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7 (주일)	8/8 (월)	8/9 (화)	8/10 (수)	8/11 (목)	8/12 (금)	8/13 (토)
본문	삿21 행25 렘35 시7,8	룻1 행26 렘36,37 시9	룻2 행27 렘38 시10	룻3,4 행28 렘39 시11,12	삼상1 롬1 렘40 시13,14	삼상2 롬2 렘41 시15,16	삼상3 롬3 렘42 시17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8/10수 오후7:30)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기신 것이라” (단1:1-4)
토요 새벽기도회(8/13토 오전6:30)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시90:1-17)

지난 주일(7/31)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11)

“재앙을 내린 후에야” (출 11:1-10)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지만, 그리고 애굽에 내려진 여러 재앙들로 인해 애굽 전체가 황폐화되고, 국가 권력은 거의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지만,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애굽 땅에 한 가지의 재앙을 더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물이 끓게 되는 임계점(100도)에 이르듯,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때(임계점)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과 징계의 임계점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몸에 큰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 '전조증상들'이 먼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 '전조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전조증상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의 위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히3:13)고 경고했고, 또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지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히3:15)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신앙의) '전조증상들'을 가볍게 지나치지 말며, 2)계속되는 어려움(재앙)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3)하나님께서 큰 어려움과 환란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죄악된 세상과 (분명히)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작) 소중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며,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임을 기억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